

해인사 대비로전 낙성대법회 축사

존경하는 법전 종정 스님, 지관 총무원장 스님, 현응 주지 스님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 스님, 그리고 불자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해인사 대비로전 낙성대법회를 정말 뜻 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불교역사 2000년에서 이런 일이 자주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계종 종단으로서도 정말 더없는 경사라고 생각합니다.

불자 입장에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경사스러운 일입니다만, 국가적으로도 대단히 뜻있는 날입니다. 우리나라가 오랜 불교의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불교문화가 우리나라에 많은 문화를 남겼습니다. 그 문화를 융성시킨 결과로서 많은 문화재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매우 특별하고 자랑스러운 문화재를 남겨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오늘이 굉장히 뜻있는 날입니다.

아마 그런 것이 없으면 제가 법당 건축을 지원하자고 말하기도 어려웠을 것이고 이 자리에 오기도 좀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불교로 보나 우리 문화로 보나 정말 큰 경사입니다.

제가 오늘은 치사를 참 많이 듣는 날입니다. 제가 여간해서 이만큼 치사를 못

들어 봤는데 오늘 나오시는 분마다 치사를 하는 바람에 제가 한편으로는 입이 자꾸 벌어지면서 한편으로는 과분해서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 재임 중에 해인사를 이번 까지 세 번 왔습니다. 인연이 특별하지 않으면 아마 이런 일이 생기기 매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03년 2월에 취임했는데 연말까지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안 풀리고 힘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해인사에 와서 우리 종정 스님께 저 좀 도와주시라고 간절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긴 말씀 안 하시고 열심히 하라고,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부탁드린 일도 잘 풀렸지만 그 일뿐만 아니라 나머지 다른 일들도 다 잘 풀렸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기는 했지만 하고자 하는 일들은 대체로 하나씩 하나씩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2005년 사천 비행장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만든 초음속 고등훈련기를 출고해 그날 처음 이륙했는데 그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일은 아니지만 제 임기 중 초음속 비행기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하늘에 띄우게 됐다는 것이 그 얼마나 축복입니까? 너무 기뻐서 현장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비로자나 부처님이 새로 발견되셔서 많은 사람들이 친견을 하고 간다고 그래서 두 번째 해인사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주지 스님의 방문 요청도 있고 비행기 사고 없이 잘 날아다니고, 잘 팔아 달라고 제가 부처님께 부탁도 드릴 겸해서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비행기가 팔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세 나라 비행기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나라는 비행기 말고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선물을 많이 하겠다고 하고 해서 어렵기는 하지만, 어떻든 우리가 제일 유리하다고 합니다. 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제 중동에 한 군데 있고 다른 곳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옷이나 이런 것 하고 달라 정말 몇 십 년 만에 한 번씩 사는 물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들여다보고 값과 성능을 따져 보는지 쉽사리 도장을 안 찍어

줍니다. 그 때문에 제가 일부러 전직 대통령들이 안 간 나라인데도 방문했습니다. 아쉬운 소리도 많이 하고 좋은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한 번만 더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싱거운 소리를 했습니다만, 기쁜 마음을 표현할 길이 마땅히 없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부처님을 좋은 집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이제 한 가지, 두 가지 모든 것을 정성들여 풀어 가면 나중에는 다 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국운융창, 평화통일, 국민대화합의 염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께 우리 정부도 자랑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중 제일 첫 번째는 물건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유홍준 문화재청장입니다. 우리 한국의 국보급 문화재 같은 사람입니다. 아마 유홍준 청장이 맡고 난 뒤에 우리 문화재의 대우받는 수준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도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제가 비로자나 부처님 복장의식 발원문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경제적으로 넉넉한 나라, 그리고 서로 돕고 함께 사는 상생의 나라, 연대의 나라 그런 한국이 되게 해 달라고 기원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바라는 나라도 저와 크게 다르진 않을 것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시끄럽고 힘들었던 기억, 그리고 버거운 싸움을 계속했던 기억 밖에 별로 남아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하도 유능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 역량이 아주 뛰어나서 대한민국은 잘 가고 있습니다.

사는 사람마다 소원이 다르고 한 가지를 이루면 더 큰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잘된 사람은 아주 잘되고 그냥 사는 사람은 그냥 살지만 지금도 어려운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전보다 조금 나빠진 사람들, 언제나 어려운 사람들의 가슴속에 제가 큰 기쁨을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우리 경제가 세계 10위권에 들어서 안정적으로 가고 있

습니다. 경제성장률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흠을 잡는데, 제 생각은 높은 성장률도 좋지만 널뛰기를 안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5년 내내 경제가 널뛰기를 하지 않게 안정되게 끝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지난날 우리 경험에 의하면 경제가 아주 좋아질 때 가난한 사람들과 잘 사는 사람의 거리가 더 멀어지고, 경제가 곤두박질쳤을 때 어려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직장에서 떨어져 나오고 길거리로 쫓겨났습니다. 경제가 안정되면서 서서히 성장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저는 5% 정도 성장을 계속해 갈 수 있는 동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력이라는 것은 경제가 병들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 요소에서 병들지 않아야 하고 심각한 불균형이 없어야 합니다. 그것을 목표로 해왔는데 대개 그렇게 유지돼 갈 것입니다. 경제전문가들이 보기로는 지금은 5% 정도 성장도 가능하지만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5%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대체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준에서 지난해, 금년 이렇게 5% 수준을 유지한 것이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국가 경쟁력 수준을 가지고 굳이 얘기를 하면 평가가 들쭉날쭉해서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전보다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기업의 경쟁력의 핵심요소가 뭐냐. 기업 경영을 알뜰하게 하는 것도 경쟁력의 요소고, 모든 사람들이 손발을 잘 맞추는 것도 경쟁력의 요소고, 경쟁력의 요소는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우리가 비용절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기업에서 가장 결정적인 경쟁력은 기술력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로 과학기술의 수준, 생산기술의 수준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생산력, 과학 경쟁력, 기술 경쟁력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세계 14위에서 7위로, 기술 경쟁력은 24위에서 6위로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국민소득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올해 국민소득은 연간 다 통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 연말 통계를 다 합쳐 예상하면 올해 2만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예측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우리 환율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든, 싱가포르든, 어느 나라든 소득 수준이 올라갈 때는 환율의 영향을 다 받습니다.

실제로 환율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96년, 1997년 환율은 800원대였습니다. 지금 우리 환율은 900원대입니다. 800원대로 만일 환율이 떨어진다면 우리 국민소득은 2만 1천 달러 이상으로 올라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환율은 오히려 높은데도 우리는 2만 달러를 달성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복지 예산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는 돈을 복지 예산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5년 전 정부예산의 20% 정도였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28%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8%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20조 원가량이 됩니다. 5년 전보다 연간 20조 원씩을 어려운 사람들, 노인들, 사회적 약자를 위해 더 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5년 뒤에 8%를 더 올려도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은 미국이나 일본, 유럽보다 훨씬 더 떨어집니다. 대체로 우리나라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쓰고 있는 비용을 따지면 일본의 절반입니다. 국민총생산 중에서 우리가 쓰는 비율을 따지면 8%밖에 안 되는데 일본은 16%나 쓰고 있습니다. 유럽은 평균 23~24%, 많이 쓰는 나라는 30%까지 쓰고 있습니다. 갈 길이 멀지요. 지난 5년 동안 어떻든 이쪽의 예산을 늘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결국 상생의 사회를 위해 노력한 것입니다.

성장이냐 분배냐를 말합니다. 옛날에는 개인 능력과 관계없이 수백 명, 수천 명씩 똑같은 라인에 놓고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생산방법에 의해 제품을 생산하

고 수출했습니다. 지금은 제품 하나하나에 정교한 아이디어와 문화적 디자인이 다 들어가는 생산방법입니다. 머리를 쓰지 않으면 도저히 경쟁할 수 없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일지라도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똑같이 반복되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불만이 있어도 똑같은 것만 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지만 머리를 쓰고 높은 재주를 필요로 하는 수준으로 가면 그 마음까지 편안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불안함이 없고 걱정이 적어야 됩니다. 머리가 복잡하면 높은 수준의 기술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마음에 불만이 많으면 높은 생산성을 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밑천인 시대로 갑니다. 사람을 교육해야 하고, 특히 가정환경이 나빠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각별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옛날에는 자비심으로 약한 사람을 같이 끌어안고 가야 된다는 말을 했지만, 미래에는 더 이상 자비심이 아니라 국가전략 차원의 일입니다. 국민들을 가장 우수하게 만들어 길거리에서 청소를 하는 사람일지라도 자부심을 느끼고, 사회에 대한 만족감이 높고, 자기 생활에 보람을 느끼는 상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수한 판단력으로 가지 않으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나라를 만들 수 없습니다. 상생은 더 이상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국가전략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했습니다. 지금은 누구를 비판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런 방향으로 일하는 동안 공격을 너무 많이 받았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데 대한 이해가 더 넓어졌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통령이 국민들이 하자고 하는 것만 해야 하는 것인지, 대통령의 판단으로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해야 것인지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는 어느 한쪽만으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이면서, 또한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함께 가야 합니다.

이 판단이 언제든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난날 기억을 돌이켜 보면 국민의 이익이라고 말했던 많은 것이 지나고 보면 국가를 위해 전혀 이익이 되지 않았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의견과 대통령의 의견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정부가 언론하고 그렇게 각을 세우고 맞서야 하는 것인가, 부처출입제도, 기자 단제도를 갖고 그렇게 싸워야 하는 것인가, 이 문제가 과연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이익이 되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저도 쉽지 않고 국민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대체로 이런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만 양심껏 하느라고 했습니다.

제가 중간에 안 쫓겨 나오고 무사히 다 마치고 나오게 된 것을 저는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이 좀 편안할 것 같았는데 역시 제 팔자가 그런지 마지막도 시끄러운 일이 몇 개 터졌습니다. 정책실장 사고가 나고, 비서관 한 사람 사고가 나고, 지금은 무슨 비자금 의혹을 제기합니다. 비자금, 조사하면 됩니다. 조사하면 되는데, 당선축하금은 안 받았거든요.

어떻든 의심을 받는다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부끄러운 일이고 국가적으로도 슬픈 일이고 특검을 하든지 안 하든지 어느 쪽으로든 제가 흑백을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뭘 덮어 버릴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은 다 밝혀집니다.

운 좋은 사람은 숨기고 갈 수 있을 것이고요. 옛날에는 힘이 세면 숨기고 갈 수 있었는데 요즘은 힘이 세서는 숨기지 못하고 운이 좋아야 숨기고 갑니다. 세상이 바뀐 것이지요. 마지막이 조금 파란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동안 제 양심으로 국민을 위해 하고 싶었던 일, 꼭 해야 될 일들은 그런대로 열심히 할 수 있었고, 몇 가지가 남았지만 대부분 이루고 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누구 탓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부처님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회를 주신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 해인사 주지 스님, 그리고 여러 스님들, 그리고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십시오. 소원 성취하십시오.